
의료 기술인의 육성비전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과학 교실

교수 김진상

달라지는 의료 환경과 사회적 요구

우리 나라에서 의료의 혜택의 수준이었던 것이 불과 얼마전의 일이다. 그러나 경제적 성장에 필연적으로 뒤이은 국민 계보험으로 의료는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라 국민이 당연히 향유하여야 할 권리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다. 인식의 전환은 의료 수용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져 의료시혜의 개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치료를 받은 권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의 질을 보장하라는 요구 즉 *mart living*에 대한 요구가 대두 될 것이다.

현안문제만 보더라도 의료보험의 통합, 의약분업, 상대가치의 개발, 포괄수가제 도입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급격한 의료 환경의 변화가 예고 되고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인의 역할 또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방사선 분야로 국한하여보면 새로운 기술과 영상장비가 끊임없이 개발될 것이고 이들이 *network*화하는 PACS의 실현이 가속화 될 것이다. PACS의 일반화는 방사선과 진료형태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여 방사선과 종사자들의 역할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Information Technology, Materials Technology, Genetics, Energy Technology가 가장 가까운 장래에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줄 driving forces가 될 것이며 이중에서 Energy Technology를 제외하면 세 가지가 당장 의료에 영향을 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구가 이미 50억을 돌파하였고 빠른 시간 안에 100억에 육박하는 인구 폭발과 함께 인구의 고령화를 초래할 것이다. 의료는 치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둔 발전이 추구될 것이며 일괄적인 진료에서 개별적 특색화가 요구되어 의료인의 전문화 혹은 역으로 일반화의 양극화 경향이 추구 될 것이다.

현 양성 제도의 문제점

의사 등의 양성 제도에서 다양한 교육배경을 가진 의사의 양성이라는 명제는 4+4 학제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의사를 제외한 보건의료전문인의 경우에도 교육배경의 다양화는 사회적 요구로 대두 될 것인바 현재의 양성제도는 정규교육과정으로 통일된 것을 제외한다면 약 40여 년간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문인의 양성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나라에 양성 기관은 많이 확보되어 있으나 양성을 책임져야 할 교육자의 배출 기능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방사선사 양성을 책임져야 할 교수요원의 양성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매우 심각하다 할 것이다.

그 동안 전문대학의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현 양성제도가 의료기관의 방사선과에 근무할 전문인의 양성에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고 하여도 임무 중심의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방사선과에서의 근무가 일차적인 목표라면 자격취득과 동시에 근무가

가능한 교육과정과 시설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전문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육결과에 대한 평가는 결국 국가자격시험인데, 이 시험이 보건의료인 국시원으로 이관되면서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는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현실이다. 평가가 교육의 질에 되먹임을 주는 효과를 생각하면 좋은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교육개선의 한 방안이 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평생교육제도의 미비에 있다. 전문인 양성과정의 교육이 완전하다고 해도 새로운 지식은 깜박할 사이에 양산되는 현대사회에서 학교에서 가르친 지식이 얼마 안가 허구로 변할 가능성이 높은 현실에서 대학의 교육만으로 평생 동안 전문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무리한 일 일 것이다.

추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국제화 추세에 맞는 제도 개혁일 것이다. 국경이 없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글로벌 시대가 현실로 다가온 지금 국경은 더 이상 장벽이나 보호막일 수는 없다. 미래 학자들은 global supernational government의 출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또한 실례로서 유럽의 통합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흐름과 상관없는 교육, 특히 전문인의 양성은 의미가 없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각 지역의, 혹은 각 국가의 전문적인 자격이 상호간의 인증제도를 통하여 호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새로운 교육의 추구

전문인의 양성은 언제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의료의 핵이 되는 전문의사 양성은 미국제도의 도입으로 의료 발전에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와서 여러 가지 모순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제도의 출발이 개원 의사의 전공과목 표방을 목적으로 시작한 잘못과 함께 학회는 수련의 질, 중소 병원은 값싼 의료 인력의 확보에만 집착한 결과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의 낭비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를 보아도 요구에 효율적으로 부응하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실감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전문대학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길이다.

협회나 학회의 주도로 확고한 교육목표와 학습목표의 개발이 시급하다. 개발된 학습목표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대학의 인증과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교육이 완료된 시점에서 교육결과를 검증하는 제도로서 국가시험이 시행될 때 학습목표에 입각한 출제 기준이 확립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자격의 검증이 끝난 다음에는 평생교육제도가 확립되어 평생을 전문인으로서 손색없는 자질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방사선사를 잘 양성할 수 있는 교수요원, 혹은 지도자 양성과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3년제로서는 대학원 진학이 편법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수한 교수 요원의 양성이 제도적으로 봉쇄되어 있으므로 대학원 진학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교육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방사선과 교수 중에는 교육학을 전공하고 교육제도의 개선에 연구의 방향을 맞추어 매진하는 집단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은 졸업생의 진로가 다양할 것에 대비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변하면 대학의 교육내용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방사선사의 역할이 영상을 창출해 내는 것으로 끝나던 시대는 가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영상을 하나의 중요한 정보로 취급하고 관리하는 역할이 주가 될 것은 멀지 않은 장래의 일이다. 의료의 전문화, 혹은 세분화 추세는 이에 따른 보건의료인의 전문화로 이어질 것이므로 교육은 방사선사의 양성에만 국한한 교육이 아니라 추가적인 교육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care manager 등이 새로운 직종이 생겨날 때 그 것이 방사선사의 몫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전문화와 일반화를 동시에 추구하자는 것이다. 즉 방사선사 교육과정 자체가 자질이 훌륭한 방사선사의 양성 과정으로서의 구실을 함은 물론, 나아가서는 보편적인 보건전문인의 기초 양성 과정으로서의 기능을 추가하여, 의료의 분화에 따른 CAO(Certification of Added Qualification)의 요구가 대두될 때 방사선사가 이러한 요구에 응할 수 있는 태세를 미리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국제화 추세에 발 맞추어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분석하여 따라가거나, 국내의 현실과 조화를 시도하는, 앞서 언급한 교육학 연구집단에 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개방화되어 가는 21세기의 보건의료 환경에서 변화와 더불어 국제표준기구(ISO)의 교육기관 인증이 실시될 때에 나오되는 낭패를 막아야 할 것이다.

방사선사와 각 단체의 역할

대한방사선사협회는 그 동안 인화와 단결을 바탕으로 많은 발전을 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역대 집행부의 노력과 현 집행부의 헌신적인 자세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음이 틀림없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회원들의 참여 의식만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된다면 다음 세기에서도 계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개혁의지로 현안문제에 대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여야 함은 물론 한편으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상설 기구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교수들의 단체가 중요하다. 교수들은 자신이 배출하는 방사선사의 질적 수준 유지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졸업 후의 교육에 이르기까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또한 일선에서 활약하는 방사선사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이를 실천하는 현실적인 방안으로써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협회나 교수 단체의 실천 의지를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